

인터넷 '한국학' 책 소개, 이제야 걸음마

수량 적고 논문 초록이 대부분 ... 인터넷 통한 '세계화'의 체계적 전략 필요

정태영

광주일보 기자

지금 인터넷에서는 충성없는 새로운 '출판 전쟁'이 한창이다.

가상서점, 전자책, 전자도서관 등을 중심으로 문화적 명예와 국운을 건 한판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고갈되지 않는 지식의 샘"을 정보화시대에 맞게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이다. 인터넷에 출판업계가 본격적으로 눈을 돌린 지는 2, 3년전.

1백만여권의 책 목록을 준비해 놓고 지구촌 네티즌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세계최대 가상서점 아마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만 90여억원. 96년 《타임》지가 선정한 베스트 웹 사이트 5위에 오를 정도로 그 위치가 확고하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무려 1억여점에 이르는 소장자료를 단계별로 전부 디지털화하는 야심찬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또한 타임, 핫와이어드 등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신문·잡지만 수천종이 넘어설 지경.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한국출판의 세계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외국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왜곡된 정보도 방치된 상태다.

대학연구기관의 자료가 대부분

한국관련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는 크게 대학 전문연구기관, 도서관, 정부 공보처, 신문 잡지 등 네 종류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도 대학 연구기관은 '한국학'(Korean Studies)이라는 학문의 한 분야로 한국의 역사·문화에 관한 소개와 자신들의 연구논문들을 일찌감치 인터넷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왔다. 그러나 이 자료들 대부분은 본문 전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초록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단순히 자신들의 연구소를 2~3페이지에 걸쳐 소개하는 정도에 그친 곳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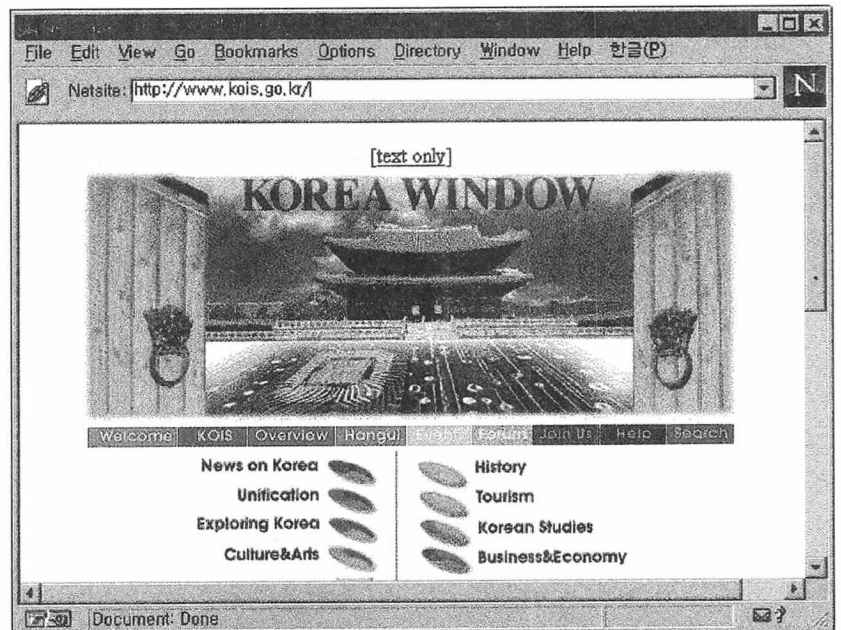
미국의 하버드대, 버클리대, 하와이대, 워싱턴대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나쉬대학 등이 한국학과 또는 한국연구소를 두고 있다.

워싱턴대학을 예로 들자면 한국 관련 자료로 어학교재, 신문 등 총 5만4천여건의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 지역 자료들의 약 12%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재 워싱턴대학이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학 관련 자료는 불과 수페이지에 불과하다.

정리를 잘해놓은 곳 중 하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호프만씨의 홈페이지. 전세계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400여명의 인터넷 E메일(E mail) 주소로 정리한 게 특징이다. 또한 한국의 신문, 대학도서관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았다.

인터넷 도서관들은 아직은 소장 도서의 목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한 정도다.

미의회도서관, 대영박물관도서관, 프랑스



공보처에서 만든 <코리아윈도> 홈페이지.

국립도서관, 일본국회도서관 등도 한국 관련 자료들을 제공한다. 현재 인터넷에서 다른 국가들이 제공하고 있는 한국 관련자료들은 거의 대부분 올드미디어로 소장하고 있던 도서목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부분적으로 미술품의 사진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현재 컬럼비아대학의 야누스계획은 단순목록에서 모든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으로 한 단계 도약한 상태) 또한 97년을 기점으로 모든 자료의 디지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출판의 세계화에 소홀했던 결과가 인터넷상에서도 재방되고 있다. 미의회도서관 소장 도서(1997년 3월 기준)의 예를 보자.

단순 키워드 방식으로 'Korea'와 'Japan'을 치고 관련도서목록을 찾아보면 한국의 경우 4,969건, 일본은 14,104건으로 일본에 관계되는 자료들이 거의 세배나 많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영문자료 너무나 초라해

또한 잘못된 정보들도 제대로 수정되지 않은 채 오랫동안 방치되기도 한다. 서울시 (<http://www.metro.seoul.kr>)가 최근 실시한 '한국바로찾기' 정보검색대회는 인터넷, 전자출판물 등에서 한국을 잘못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지적된 사항만 527건이었다. 이중에는 독립일, 태권도, 태극기에 관한 오류도 있었다.

국내 학계의 인터넷을 통한 '한국학의 세계화'에 대한 무관심도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 국내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세계를 향해 한국학(영문으로)을 설파하는 곳은 아직 없다.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 공헌한 연세대의 국학연구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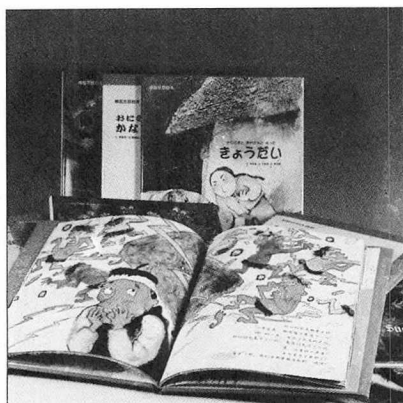
"1954년 창간된 정기간행물인 《동방학지》를 1년에 4번씩 발행하여 세계로 발송하지만, 인터넷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연세대 국학연구원 최복원 씨(48)는 밝힌다.

공보처 해외공보관에서 영문으로 제공하는 <코리아윈도>(<http://www.kois.go.kr>)도 국가에서 정리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다. 도서의 경우 영어로 씌어진 52권과 한국

화제의 책

4개 국어로 소개되는 우리 옛이야기

도서출판 보림의 '옛이야기 그림책' 3종 번역 출간



우리의 옛이야기가 해외에 소개된다. 도서출판 보림(대표 조은숙)은 《도깨비방망이》 《재주 많은 다섯 친구》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등 3종의 옛이야기 그림책을 영어·어중국어·분어 등 4개국어로 동시 출간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의 입말로 상징되는 착한 농부와 나쁜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 권선징악의 교훈을 담은 《도깨비방망이》(정차준 글/한병호 그림)를 비롯해 《재주 많은 다섯 친구》(양재홍 글/이춘길

그림),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이규희 글/심미아 그림) 등의 옛이야기를 해당 언어권의 어린이 감각에 맞게 옮겨 펴냈다.

영문번역은 존 하비(서강대 부설 영어연구소장 역임) 이춘옥씨, 불어번역은 박미리씨(이화여대 불문과 강사), 중국어 번역은 중국 조선족인 고종문·장배덕씨, 일본어 번역은 오사카 외국어대 조선어과를 졸업한 나카무라 오시무씨가 각각 맡았다.

단순 직역보다는 한국민담이 지닌 의미 표현에 중점을 두고 의성어나 의태어, 문장 리듬감을 살린 것이 특징. 출판사측은 출간된 3종 외에 올해 안에 10여종의 외국어판 옛이야기 그림책을 더 펴낼 예정이다. ❖

한국학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웹사이트	주소
가상서점 아마존	http://www.amazon.com
미국 의회도서관	http://lcweb.loc.gov
하버드대학 한국학과	http://hcs.harvard.edu/~korea
버클리대 한국학과	http://violet.berkeley.edu/~korea
하와이대 한국연구소	http://www2.hawaii.edu/korea
워싱턴대 한국학페이지	http://weber.u.washington.edu/~sehanis/koreapg.html
오스트레일리아의 모나쉬대학 한국학과	http://www.monash.edu.au/~korea
호프만씨의 한국학 홈페이지	http://www.fas.harvard.edu/~hoffmann
대영박물관도서관	http://portico.bl.uk
프랑스 국립도서관	http://www.buf.fr
일본 국회도서관	http://www.ndl.go.jp
공보처 <코리아원>	http://www.kois.go.kr

어로 저술된 168권을 영문초록으로 제공한 다.

이미 인터넷을 통한 출판전쟁이 시작되었지만, 국내 대응은 총도 부족하고 실탄도 없는 형국이다. 가상공간의 저작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96년 12월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회의에서 160여개국 대표들이 인터넷에서도 저작권을 인정해줄기로 합의했다.

미국·일본 등의 출판업계는 디지털 정보를 자본으로 여기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몇 개 출판사(문학동네, 한울, 영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별적 홈페이지 수준이고, 그나마 해외보다는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정부, 민간연구단체, 출판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출판물의 세계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때다.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중복투자와 학문적 성과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

도서관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분산적 중복투자의 비효율성이다. 가령 홍명희의 《임격정》을 각 도서관마다 디지털화한다고 생각해보자. 거기에는 입력비, 교정비 등이 중복되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만 해도 2000년까지 11만종의 주요자료 본문내용을 인터넷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런 경우 미국처럼 도서관마다 고유정보들을 특화하거나 서로의 역할을 나눈 공동작업도 고려해볼 만하다. <알렉산드리아 프로젝트 웹>(http://alexandria.sdc.ucsb.edu)은

캘리포니아 카네기멜런 UC버클리 스탠퍼드 일리노이 미시건대학 등이 공동작업을 통해 1천만권의 책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꾼 것이다. 과학·전자·공학분야의 자료를 집대성한 MIT대학(http://nimrod.mit.edu), 세계 각 대학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와 학술회의 자료를 정리한 시라큐스 대학의 <에스크에릭(AskERIC) 가상도서관>(http://ericir.syr.edu) 등은 특정정보를 전문적으로 구축한 예이다.

대표적인 한국관련 인터넷지도 만들어야

자료를 쉽게 찾도록 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전남대 문헌정보학과 정준민 교수는 “외국인들이 한국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소러스 검색엔진(thesaurus: 키워드 방식에 유사단어까지 제공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찾도록 하는 방법)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한편 정부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해외 곳곳에 널려 있는 한국 관련 인터넷사이트의 주소를 전부 한곳에 모으는 작업이다. 즉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한국 관련 인터넷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밖에 정부와 출판업계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외국의 전자도서관에 한국 관련 각종 디지털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들을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 ❖

집짓기의 즐거움

새 집을 지으실 계획이랑요?
저희와 상의해 주십시오.
아름다우면서도 견고한 건축물이 되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집필: 자서전· 회고록· 개인출판 및 문학· 위인전 등
윤문: 번역물 및 아동물 등의 리라이팅
교정: 사전류· 참고서류· 한서 및 학술서적 등
편집: 백과사전· 잡지· 사보 등

기계설비

매킨토시 5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3대
스캐너 2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 24시간 출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아래아한글 3.0, 96).

함께 일할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내용 중 특히 교정·교열 쪽의 일을 자신있게 해낼 수 있는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경력이 반드시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일을 해보신 분이셨으면 합니다.



三現編輯室

대표자: 김문권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화: 549-6883~5 팩스: 549-6877
천리안 ID: SAMYEUN